

선남선녀

티맥스소프트 강경수 과장은 이제 홍보 업무를 맡은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홍보담당자다. 그러나 그의 IT분야 경력은 IT전문잡지, 리서치 경력을 포함해 이제 10년이다.

그는 앞으로 그간의 경험을 살려 국산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의 홍보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산 솔루션 업체가 세계적인 IT 솔루션 업체로 성장해야 한다. 강 과장은 “이 과정에서 한 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과장이 IT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90년대 중반이다. 인문학 계통 공부를 하고 있던 강 과장을 IT 분야로 이끌었던 것은 이 시기에 보급이 확산됐던 PC통신, 가정용 PC다.



방 안에서 다른 지역, 다른 국가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IT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IT분야의 일을 찾게 됐다. 강 과장은 “가정용 PC, PC 통신을 통해 IT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면서 “이후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IT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강 과장은 대학 졸업 이후 줄곧 IT 분야의 일만 해왔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 분야가 좋다고 한다.

강 과장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다른 일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IT에서 타 분야로 옮긴 선배들을 보면서 IT분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언젠가 함께 일했으나 다른 분야로 간 선배를 오랜만에 만났다. 그 선배는 “IT분야에 있을 때보다 대우는 더 좋아졌지만 업무는 이전에 1/4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IT 분야에서 일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직을 하고 보니 그게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이다.

순간 강 과장은 ‘뭐야? 약 올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선배가 말을 잇기를 “그래도 IT 분야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다”고 말하면서 지금 하는 일은 너무 심심하고 무미건조해서 ‘색다른 좌절’을 느낀다는 말을 듣고 공감했다고 한다.

강 과장은 이 색다른 좌절, 도전, 희망이 IT 분야에 오랫동안 남아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강 과장은 작은 IT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프로젝트를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잦은 야근으로 몸은 녹초가 됐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면 모든 피곤이 날아가는 듯했다.

현재는 홍보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보도자료가 많은 매체에 게재됐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다. 강 과장은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중요한 성과를 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인정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IT분야는 이런 보람을 느끼기에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산 SW 홍보 담당자가 비전”

티맥스소프트 마케팅팀  
선남/강경수 과장

강 과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티맥스소프트가 향후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하고 모든 면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역사의 전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홍보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직무 역량 강화와 영어 등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 과장에게는 내년을 목표로 하는 개인적인 계획도 있다. 내년에는 결혼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 과장은 IT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현재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풍성한 인생설계를 해나가고 있다. K

이정은(31)씨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커리어 우먼이다. 비즈니스오브젝트코리아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근무하는 그녀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이씨의 회사는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전문 업체로, 경영자들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이씨는 이 곳에서 마케팅과 파트너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비즈니스오브젝트코리아의 고객들이며를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전략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그녀의 일이다. 마케팅 및 파트너 관리 책임자로서 BI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파트너들에게 비즈니스 오브젝트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씨의 가장 큰 매력은 언제나 당당하고, 활력있는 모습이다. 그녀 회사의 동료들은 지치고, 수동적인 그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를 증명하듯 좌우명은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이라고 한다. 자신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책임져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심지어 자신의 특기로 피아노 연주와 함께 '전략 기획과 실행' 을 꼽고 있다. 일과 삶에 대한 전략을 짜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녀의 특기다. 홀로 산을 오르는 등산이나 어느 요리책에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이 취미라는 점도 그녀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그녀는 "일이트 일상 생활이든 누구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 하려고 노력한다" 고 말했다.

인생의 반역자를 찾는 일에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는 마찬가지다. 30대에 들어선 후 주위에서는 결혼을 서두르지만 이씨는 아직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만나볼 것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조건보다는 그녀 자신과 그녀의 일을 응원해 줄 남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좋은 조건의 상대를 찾아 헤매는 것은 그녀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 '정확하고, 깊이 있으며, 한결 같은' 사람이 그녀의 이상형이다. 더 나아가 '존경할 만한 사람' 을 만나길 바라고 있다.



## “언제나 당당하고 활력 있는 모습이 매력”

비즈니스오브젝트코리아 마케팅 및 얼라이언스 매니저

선녀/이정은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 고 말한다. 소박하지만 열정적인, 결코 쉽지 않은 두 길을 그녀는 걷고 있다.

## 선 · 녀

- ▶ 이름: 이정은
- ▶ 나이: 31
- ▶ 직업: 비즈니스오브젝트코리아 마케팅 및 얼라이언스 매니저
- ▶ 취미: 등산, 새로운 요리 시도
- ▶ 특기: 피아노 연주, 전략 기획과 실행
- ▶ 좌우명: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 ▶ 감명깊게 읽은 책: 알랭 드 보통 <불안>
- ▶ 감명깊게 본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 ▶ 꿈: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

